

2020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리앤 델지엘은 2011년 2월 22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께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저는 새로 뽑힌 시장이 흔히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큰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것은 2011년 2월 22일, 우리 도시의 건물이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가족들께 드려야 할 답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추모행사에 앞서 지진피해자 가족모임(Quake Families Trust) 여러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가족들이 다시는 겪지 않기 바란다는 말씀에 저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모행사에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공식사과를 원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당시로서는 그러한 사과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뉴질랜드 법률체계가 외국과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개인적으로나 시를 대표하여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사과를 전함으로써 그러한 차이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 모두가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며 어떤 말과 행동도 그 날의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이 잃은 것을 다시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여 저는 일본의 피해자 가족이 보낸 편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편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상실감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겪을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할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는 것”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 사과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크라이스트처치는 물론 뉴질랜드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대표하여 2011년 2월 22일, 우리 도시의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185명을 한 분, 한 분 되새기고자 합니다.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지고 포트 힐스(Port Hills)의 낙석으로 건물이 무너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정신적 충격을 겪은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사망한 185명 가운데 115명은 CTV 건물에, 18명은 PGC 건물에 있었습니다. 두 건물이 있던 곳은 지금은 영구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희생자를 추억할 나무와 꽃으로 채워진 평화로운 공원이 조성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그곳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뜻 밖의 장소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무너진 벽돌에 깔리거나 차 안에 있다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벽돌건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과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의 진행양상 등 우리는 크라이스트처치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진에 취약한 건물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4일 지진 발생한 뒤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절한 격리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부적절했던 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않았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붕괴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모든 분들께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 이후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인명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지진취약 건물은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진 위험지역내 다른 취약 건물에 허용된 시간의 절반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시정조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강조치를 하지 않은 벽돌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건물 일부가 통행이 많은 도로 위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법 개정에도 따라 시의 권한이 확대되어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뒤에도 시정조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TV 건물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으로서 그리고 시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CTV 건물 붕괴 희생자 가족 여러분이 겪은 고통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비극적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위로를 담아 CTV 건물 내 모든 사망자의 가족, 친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태국에서 오신 분들과 뉴질랜드 국민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소중한 그 분들 모두는 희망과 꿈을 접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CTV 건물 붕괴로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모든 분과 그들의 가족, 친지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날의 사건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뉴질랜드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되기 오래 전부터 저는 CTV 건물의 붕괴를 초래한 원인과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막거나 건물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CTV 건물은 당시의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급받았습니다. 지진 발생시 건물 붕괴를 초래한 원인을 조사한 캔터베리 지진위원회(Canterbury Earthquakes Royal Commission)는 최종 요약보고서에서 CTV 건물의 건축허가가 그대로 발급된 원인을 분석했지만 추가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건물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다양한 검사방법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축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의 시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가 전자파일로 만들어져 모든 문제점을 시청이 검토할 수 있어 과거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기관들은 건축과정이나 완공 이후 드러난 모든 결함을 시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최초 지진과 12월 복싱데이(Boxing Day)에 발생한 여진과 관련하여 건물에 부착된 안내문에 적힌 대로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사용되는 신속 검사법은 심도 있는 공학적 평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속 검사법은 육안 검사일 뿐이어서 “검사완료. 사용과 거주에 제한 없음.”이라는 안내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직접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내문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 구조물평가를 받을 것을 건물주에게 권고하였는데 CTV 건물의 경우 이에 따라 전문 엔지니어의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했을 때 문제를 통해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저희는 그

날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을 기억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점검과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실제에서도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서 애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앞서 사고현장에 투입된 도시 수색구조팀(USAR)과 끔찍했던 그 날, 최악의 상황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사태수습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